

운전자 보호해 주는 자동차 윈도우 틴팅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틴팅 시공을 한다. 틴팅이란 '윈도우 필름을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색을 입힌다는 '틴트(Tint)'라는 단어를 사용해 '틴팅'이라고 한다.

어떤 차량은 틴팅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 차량 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자동차를 보면 '저렇게 진하게 틴팅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 자동차 틴팅 필요성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blog.naver.com/sfdirect)에 따르면 틴팅은 눈부심 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하다.

먼저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다. 틴팅 작업을 한 자동차 유리는 빛을 반사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부와 눈을 보호해 준다. 특히 더불어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눈의 피로도도 낮춰 준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실내 내장재의 변색과 손상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의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 틴팅한 차량과 하지 않은 차량의 여름철 내부 온도는 차이가 크다. 틴팅을 하면 뜨거운 태양열을 줄여 차량 내부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이처럼 차량 내부가 과열되지 않으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내부의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내부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히터 가동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리 파손을 보호를 위함이다. 틴팅을 하면 유리에 필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창문이 부서져도 유리 파편이 날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

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유리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다. 틴팅을 하지 않으면 밤에도 차량의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 차량 내부의 귀중품을 도난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즉, 틴팅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 틴팅 관련 캘리포니아 법규는?

캘리포니아는 가시광선 투과율(VLT)로 틴팅 밝기를 규제한다.

전면 유리는 상단 4~5인치만 반투명 틴팅이 가능하다. 앞유리 상단에 짙은 남색으로 착색이 돼있는 차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 외 틴팅필름을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1열 옆유리는 VLT가 70% 이상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틴팅이 금지돼 있다.

2열과 뒷유리는 짙게 틴팅할 수 있다. 단 2열유리가 짙게 틴팅 되어 있으면 사이드미러는 양쪽에 하나씩,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한다.

또 반사가 되거나 붉은색이나 호박색 계열의 틴팅



은 할 수 없다.

다만 피부 문제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 환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VLT 70% 이상의 투명한 자외선 차단 필름을 1열에 시공할 수 있다.

틴팅시공이 된 차량의 소유주는 틴팅 제조사 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VLT 증명서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 틴팅 농도, 무조건 진하면 좋을까?

틴팅은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틴팅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색이 짙은 필름일수록 틴팅 기능이 좋을 것 같지만 색의 농도는 눈부심을 방지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에만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농도가 짙으면 비가 오는 날이나 어두운 거리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동차 외관을 더 수려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전면 유리에 반사필름을 틴팅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야간 주행 시 빛 번짐 현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틴팅 하기 좋은 계절



틴팅을 한다면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틴팅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필름이 유리면에 완전히 부착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봄과 가을의 온화한 날씨는 틴팅 필름이 차량 유리면에 제대로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5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